‘보물 된 부처님 말씀’ 세상에…

범어사,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 발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적 박물관’이란 별칭이 있을 만큼 1000여 종이 넘는 전적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불경과 해설서 그리고 선서 등 부처님 가르침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 중요도가 매우 높다. 범어사는 성보박물관 신축을 기념하며 유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고문헌이란 특수성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전적을 친숙하게 설명하는 새로운 자료를 발간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경선)은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을 구랍 22일 발간했다. 도록 〈범어사의 전적〉은 △보물이 된 부처의 가르침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 △보살행의 길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 △일상생활이 모두 작법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라 △동래부 금정산 범어사 개간으로 등 총 7부로 나눠져 구성돼 있다.

‘보물이 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는 전적 중 보물 4종과 부산시 지정문화재를 소개한다. 특히 14세기 간행본 〈삼국유사〉 권4~5를 담고 있으며 간행 경위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전적들이 포함됐다.

성보박물관 신축 기념 도록
소장 전적 100개 가려 뽑아
누구나 읽기 편하게 저술해
“문화재 안내 노력 다할 것”

‘나는 이와 같이 들었노라’에서는 한국불교 사상에 영향을 끼친 불경과 해설서를 안내했다. 불자에게 익숙한 〈법화경〉 〈금강경〉 〈화엄경〉 등을 비롯해 밀교의 주요경전인 〈다라니경〉 등 불교 및 해설서 현황을 소개해 주요 경전의 의의와 성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보살행의 길’은 불경 가운데 율장과 논장을 설명했으며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에서는 선서 안내도 이어진다. 불교 의식 및 절차를 소개한 의례도 담겨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사와 선사의 일생과 가르침을 살펴보는 책도 안내되어 있다. ‘마음을 가지고 부처를 구하지 말라’에서는 조사들의 행적이 전기 형태와 문집으로 기록된 책을 소개한다.



범어사 성보 박물관이 발간한 소장 유물 도록 〈범어사의 전적(梵魚寺의 典籍)〉.

〈범어사 전적〉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시민에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고문서를 쉬운 현대어로 풀어 소개한 점이다. 또 1000여 종의 전적 가운데 100개를 선별해 주요 유물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이번 도록을 통해 고문헌을 조금 더 쉽게 소개하고자 했다”며 “옛 전적에 담겨 있는 선인들의 지혜를 되짚어보며 앞으로 더 나은 길로 발전해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에는 국가 및 부산시 지정문화재 80여 점과 380여 점의 문화재, 보물 삼국유사, 금장요집경 등 보물 5점을 비롯해 크고 작은 유물 4900여 점이 있다. 또한 박물관 착공 소식에 문화재 기증이 이어지고 있다. 범어사는 도록에 담지 못한 중요 전적 및 문화재 안내에도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이번에 담지 못한 다른 중요한 전적들이 많이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역사적, 사상적, 문헌사적 의미를 밝혀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보존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은 구랍 25일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새 청사에서 ‘삼존불 점안 및 개원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부산 태고종, 통합 종무원 도량 ‘활짝’

수안동으로 이전… 삼존불 점안 개원법회

통합의 새 출발을 알린 한국불교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이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태고종 부산교구 종무원(원장 자관)은 구랍 25일 동래구 수안동에 위치한 새 청사에서 ‘삼존불 점안 및 개원이전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는 테이프 커팅과 내빈소개 및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태고종 부산교구는 통합이 있기까지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면서 부산교구 총무국장 봉진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도진 스님, 규정부장 혜암 스님, 한국불교신문 주필 원응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봉 스님, 경남남부종무원장 혜창 스님, 대구경북종무원장 법운 스님, 화엄승가회장 자인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자관 스님은 “중흥조인 태고 보우 스님의 가르침을 부산에서 다시 열어야 할 소명의 때가 왔다”며 “아픔을 걷어낸 지난 11월, 통합 원장 취임을 마치고 새로운 장소에서 새 출발을 알리게 됐다. 함께 해준 모든 종무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법가에 담은 ‘모두의 한마음’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송년의 밤 음악회 열어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은 구랍 22일 우봉아트홀에서 송년의 밤 한마음음악회 ‘자유인이 되리라’를 개최했다.

무대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담긴 ‘선법가’가 울려 퍼졌다. 2018년 한 해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행복했던 시간을 마무리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음악회가 개최됐다.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혜공)은 구랍 22일 우봉아트홀에서 송년의 밤 한마음음악회 ‘자유인이 되리라’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대구지원 선법합창단과 어린이 및 청년 선법합창단이 참여했으며,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선법합창단과 피아노 병창 최준이 특별 출연했다. 최준은 발달장애를 갖고 있지만 5살 때부터 한마음선원에서 공부하고 〈천수경〉 〈반야심경〉 및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음악으로 만들어 널리 전하고 있다.

대구지원은 ‘한마음으로’ ‘마음밭 농사’ ‘자유인이 되리라’ ‘자기의 길을 닦으려면’ 등 선법가로 무대를 채웠으며 노라조 원곡의 카레, 난타 공연 등 톡톡 튀는 감수성을 자랑하는 흥겨운 무대도 선사했다. 또 청년들이 참여한 피아노 3중주는 클래식의 부드러운 음색을 청중에게 선물해 박수를 받았다.

참가자들은 한마음음악회가 공부의 장이자 성장으로 이끄는 법음, 그 자체였다고 자랑스러워했다. 특히 연습하는 시간을 통해 도반들과 하나가 되고 끈끈함을 확인해 더 좋은 추억으로 남았다고 기뻐했다.

이은경 지휘자는 “청년 법우들은 합창을 통해 그동안 선원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몸소 느끼는 과정으로 삼았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참여하며 마음이 성숙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선법가가 지닌 가치를 살펴보면 연습하는 이 과정 자체가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답했다.

백수정 자모는 9살 이류경과 7살 이미림 학생의 엄마라 자신을 소개하며 “아이들이 연습을 힘들어하면서도 마무리를 잘했다. 아픈 아이도 있었는데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음악회에는 한마음선원 재단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을 비롯한 지원장 스님과 대중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박종수 한마음선원 신도회장 및 박경석 대구지원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찾아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혜수 스님은 “처음에 작아 보였던 무대가 점점 더 크게 보일 정도로 감동과 행복으로 다가왔다. 그윽한 향기가 나는 무대인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혜솔 스님은 “큰스님의 법문을 받들 때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무대였다”고 격려했다.

혜공 스님은 참여한 모든 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큰스님께서는 금강경 게송에 ‘나로부터 상대의 우주 섭류의 정신계에 광대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도리를 한데 합쳐 깨달으면 끝없는 자유인이 되리라’고 하셨다”며 “다가오는 어떤 경계도 둘로 보지 않고 받아들이고 한 생각 굴려 내려놓는 공심공생의 실천행으로 궁극에는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리라는 발원을 세우고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선법합창단은 27년 전 한마음선원 지원 최초의 혼성합창단으로 창단해 대구 BBS불교방송 연합합창제 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저소득가정에 연탄을 전달하는 군산지역 스님과 봉사자들.

세밑 한파 ‘자비의 연탄’으로 극복

군산사암聯, 지역 저소득가정에 연탄 5000장

군산사암연합회(회장 도연, 상주사 주지)가 홀몸어르신과 저소득계층 중 연탄으로 겨울난방을 해결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를 펼쳤다.

구랍 23일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불자 50여 명은 군산시 개정동 저소득층 17가구에 각 300장씩 5,000여장의 연탄과 라면 1박스씩을 전달했다.

연말을 앞두고 열린 이번 자비의 연탄 나눔행사에는 군산사암연합회장 도연 스님, 은적사 주지 석초 스님, 염불암 주지 행담 스님, 삼보사 주지 법송 스님, 수도암 주지 무진 스님, 보천사 주지 의종 스님, 성흥사 주지 보위 스님 등 스님들과 공군 호국 군성사 장병,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등이 동참했다.

도연 스님은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이웃들이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추위를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연탄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동참한 군산불교자원봉사단 불자들은 “지역불자들이 스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행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 누리에
해운대 해운정사
주 지 지 성
신도회장 박 대 성
사부대중일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전 화 051) 746-2256 / 744-4812 홈페이지 www.seon.or.kr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안국선원
사부대중일동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 (가회동) .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http://angukzen.org